

	<h1>보도자료</h1>	
<h2>10.15(목) 14:30부터 보도가능</h2>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/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				
책임자	[금융위원회] 성기철 과장 (2156-9770)	담당자	[금융위원회] 임준빈 사무관 (2156-9773)		
	[금융감독원] 강 전 국장 (3145-5970)		[금융감독원] 박정태 팀장 (3145-5972)		
배포일	'15. 10. 15. 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공보실(3145-5789~92)	총 6매

제 목 :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
- '지식중심'에서 '생활중심'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

□ 금융당국은 10. 15(목)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·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*를 개최하여, 「금융교육 강화 방안」을 마련

* 금융위, 금감원, 금융협회, 교육기관 등 기존 14개 기관
→ 교육부 등 관계부처, 소비자 관련 기관, 학계 포함 24개 기관으로 확대

1. 추진배경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

*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(10개 원칙 중 하나가 금융교육)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('11.10월)했으며,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

□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금융위, 금감원, 금융회사·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수행

□ 다만, 아직까지 금융교육 공급이 절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며, 수요자 중심의 교육설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어려움

○ 최근 금융교육 수요 급증*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 필요성도 대두

* 교과과정 개편, 고령화 등 사회·경제 환경변화, 금융상품 복잡·다기화 등

⇒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「금융교육 강화 방안*」을 마련

* 9.24일 제11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안건 보고

2. 주요 내용

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

< 추진 전략 :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강화 >

▶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
→ 국민체감도 향상

▶ '지식'에서 '생활' 중심 교육
→ 금융교육 효과 제고

5대 핵심 추진과제

금융교육
인프라
확충

생애주기, 취약계층 별 '맞춤형 교육' 강화

교육과정 개편, '1사 1교'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강화

체험형 교육 등 '재미있는 금융' 교육 확대

금융교육
공급역량
강화

강사인증제 등 공급역량 강화 및 전달체계 다양화

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캠페인을 활용한 교육·홍보

추진체계
정비

민간부문의 금융교육 역할 확대 등 민관 협력 강화

금융교육협의회 확대·개편 및 지역네트워크 확대·기능강화

1 추진전략 :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강화

① (전략 1)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

- 금융교육 관련 대상, 실시횟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했던 일반인, 대학생,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

* (대상) 연 160만명('14년) → 연 200만명('16년) → 연 300만명('20년)
(횟수) 연 3.3만회('14년) → 연 4.1만회('16년) → 연 6.5만회('20년)

② (전략 2) '지식중심'에서 '생활중심'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

-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저축·소비·재무설계 등 금융행위·태도 역량 제고를 위한 '생활중심' 교육 강화
- 시대적 트렌드(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등) 등 다양한 금융변수를 반영하고, 체험·사례 중심의 '재미있는 금융' 교육을 강화

2 5대 핵심 추진과제

① (맞춤형 교육) 생애주기, 취약계층 별 맞춤형 교육 강화

- 실생활에 유용한 일반 금융소양정보를 중심으로 전 생애에 걸친 '맞춤형 평생금융교육'을 추진
-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교육 및 교재를 개발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'찾아가는 서비스'도 지속 확대·제공

② (학교교육) 교육과정 개편, '1사 1교'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강화

- 초·중·고 교과과정 내 금융관련 내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필수 교과목(수학, 영어 등)과 금융을 접목하여 금융역량 체화 유도
- *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과과정 내 금융교육 내용 반영 확대('18년부터 적용)

- '1사 1교'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회사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정기적·지속적인 금융교육 실시

* '1사 1교'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분석 등 내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

③ (재미있는 교육) 체험·흥미 중심의 '재미있는 금융' 교육 확대

- 게임, 연극, 뮤지컬, 퀴즈 등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관, 금융캠프 등 체험공간도 대폭 확대

* (현행) 금융체험관 운영 12개사, 금융캠프 운영 8개사
→ (개선안) 금융체험관 운영 20개사, 금융캠프 운영 15개사

- '금융의 달(가칭)' 지정, 경진대회·공모전(체험수기 등) 개최 등을 통해 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금융이해력 제고

④ (공급 강화) 강사인증제 등 공급역량 강화 및 전달체계 다양화

- 금융교육 강사인증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연수제도*를 마련하는 등 전문강사를 대폭 확대**

* 집중 연수(5일, 30시간 이상), 1일 연수(월1회, 1개 과정은 1일 연수 5회)

** 금융회사 퇴직 임·직원,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강사로 적극 활용

- 인터넷·모바일 매체 등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수요자의 교육채널 선택권 강화

⑤ (홍보)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캠페인을 활용한 교육·홍보

- 네이버, 다음 등 온라인 유명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·전파

*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UCC 등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적극 게재

- 금융협회의와의 협업을 통해 업권의 특성에 맞춰 캠페인 공동 추진

* (예시) 1자녀 1통장 개설하기, 용돈기입장 사용하기, 청소년 소액주주 되기 등

3 추진체계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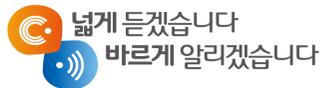
- ① (민관협력 강화) 민간부문의 금융교육 역할 확대 등 민관협력 강화
- 금융당국은 국가전략 등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, 민간부문은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, 실제 교육 실시 등으로 역할 분담
 - 민간부문의 금융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,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업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
 - * 중·장기적으로 민간협회 주도의 연합단체를 통해 인력, 콘텐츠, 예산 등 자원 지원
- ② (네트워크 강화) 금융교육협의회 및 지역네트워크 확대·기능 강화
-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교육에 대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위원구성 확대 및 기능 강화
 - * 관련 정부부처 및 학계, 소비자단체로 구성을 확대하고, 실태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
 -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지역협의회를 확대(예: 6개 → 10개) 하고 지역별 금융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기능 강화
 - * 금감원 지원, 사무소 등을 활용하고 행사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지자체 협조 추진

3. 향후 계획

-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강화방안 세부과제 신속히 추진(10월 말)
 - * 금융협회·회사, 금감원 등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원·방식·인센티브 등 검토
 - 금융교육 국가전략 마련('16년 1/4분기)
 - * '16년 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발표 예정
- < 별첨 > 「금융교육 강화 방안」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참고

금융교육협의회 구성

구 분	기 관 명
정부부처	금융위원회
	기획재정부
	교육부
	행정자치부
	보건복지부
	고용노동부
	여성가족부
공공기관 등	금융감독원
	예금보험공사
	신용회복위원회
금융협회	전국은행연합회
	생명보험협회
	손해보험협회
	금융투자협회
	여신금융협회
	저축은행중앙회
	신협중앙회
교육기관	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
	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
	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
소비자 관련 기관	한국소비자원
	YWCA
학 계	한국금융연구원
	한국금융교육학회
합 계	24개 기관